

Sermon Notes:

서론: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생겼던 교리적 문제
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 -> 니케아 종교회의
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교리: 완전한 신, 완전한 사람

본론:

1.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
 - 가. 하나님은 아버지, 예수님은 아들: 본질이 같음
 - 나.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: 필레오 = 동등
 - 다. 하나님은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을 주심: 영원한 생명
 - 라. 하나님은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심: 재림의 때
심판의 기준: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
영생은 믿는 순간에 주어짐 -> 재림 때는 구원의 완성
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음: 재림 때 심판 마무리
2. 영생인가 영벌인가는 오늘/현재의 문제
 - 가.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 결정됨
 - 나. 부활은 모두에게 있음 ->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
3. 진정한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가?

결론: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끝까지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도를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왕 노릇하는 삶을 사십시다.

암송구절: 요한복음 5장 24절

‘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’

Memo/Reflection:

1. 절대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?
2.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3.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금 있는가? 없다면 무엇이 문제?
4. 보험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생명보험은 어떤 것이라 생각?